

II. 지역정보하이라이트

중국지역

▣ 광둥성, 경기과열인가?

- 중국 전역이 긴축경기의 영향권에 든 가운데 상하이를 위시한 화둥지역에서 시작한 경기과열 논란이 중국 경제성장의 양대 축을 이루고 있는 광둥(廣東)지역에까지 파급되고 있음.
- 광둥성은 1 분기 경제성장률은 15%로 중국 평균보다 5.3% 높은 고속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나,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40.2%로 전국 평균보다 2.8% 다소 낮은 수준임.
- 광둥성은 중국이 과열업종으로 발표한 전해알루미늄, 시멘트, 철강 등 3대 업종에 대한 투자가 전무한 실정. 대신 투자가 급증한 분야는 교육, 환경보호, 수리, 공공시설 분야로 경제 사회에 필수적인 투자가 대부분. 특히 투자의 60%는 민자 혹은 외국자본으로 실제 시장수요에 기반한 투자가 진행되고 있어 경기 과열을 부추길만한 요인은 아님.

< 과열 진단업종 비교 >

	중국	광둥성
업종	전해알루미늄, 시멘트, 철강	건축자재, 식음료업, 전기기계, 전용설비 제조업, 석유화학업
원인	지방정부별 무분별한 과잉투자	실제 수요에 기반한 투자
전망	고에너지소모형, 중복형 투자 억제정책 지속	전력, 석유화학, SOC 등 선별적 고정자산투자 증가 지속

- 광둥성 올 1 분기 고정자산투자는 965 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보다 40.2% 증가함. 이는 1994 년이래 가장 높은 증가폭임. 투자분야별로 SOC 투자가 382 억 위안, 부동산개발이 252 억 위안, 농촌투자가 182 억 위안으로 SOC 투자 증가율이 63%에 달함. 단지 부동산개발 혹은 SOC 개발에만 의존했던 투자유형에서 벗어나고 있음.
-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업종은 건축자재, 식음료업, 전기기계, 전용설비 제조업, 석유화학업 등임. 민간 투자가 339 억 위안으로 전체 고정자산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5%에 달함.
- 산업구조 업그레이드와 소비구조 고도화에 따라 주택, 자동차, 첨단기술제품 등의 소비가 왕성해지면서 새로운 수요가 지속적으로 창출돼 부동산, 자동차 관련업종의 투자 증가를 가져오고 있고, 종전의 경공업위주의 성장패턴이 중화학공업으로 전도되고 있는 점도 고정자산투자 증가의 요인이 되고 있음.
- 건설분야 외자 회귀현상도 눈여겨볼만한 대목임. 2002 년 4 월 이후 건설분야 외자이용이 15 개월간 하락세를 보이다가 금년 들어 역전세를 나타내기 시작함. 특히

홍콩과의 CEPA 체결과 범주강삼각주 경제일체화에 따른 건설경기붐은 광둥지역에 대한 외자 유치 속도를 회복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음. (1분기 홍콩, 마카오, 대만의 투자 증가율 178%)

- 광둥지역 경기과열은 일부 지역, 일부 업종에서 시작된 중복투자의 성격은 아님. 오히려 전략적 육성산업인 석유화학공업(98%), 장비제조업 (64.0%), 자동차산업(113.9%) 분야 투자 증가는 경기과열이 아닌 산업구조 고도화를 가져오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 또한 투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분야의 산업생산은 수출증가와 정비례하고 있어 경제 전망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함.

□ 새로운 경기조정 정책 시행여부

- 광둥성 경제의 잠재 위협 요인은 아래와 같음.
 - 전력공급 : 제한송전을 통한 기업 효율 저하. 연 400 만 Kw 전력부족 예
 - 물가난 : 양곡, 비철금속, 시멘트 등 10% 이상 가격상승
 - 토지정리 : 기존 개발구 80% 정리. 토지 정리 재구획 성공 여부
- 광둥성은 일찍이 지난해말부터 금융조정책을 실시 대출 증가율이 중국 평균보다 2% 이상 하회함. 금년 4 월 중앙은행의 지급준비율 상향조정에 따라 대출 관리에 들어가 5 월말 현재 각종 대출잔액 증가율이 3, 4 월보다 낮아짐.
- 광둥성 정부는 특정업종 진입시 기술, 품질, 환경친화, 에너지 소모 등 제반 요인을 검토해 토지 난개발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신용대출 관리 강화, 기업간 인수 합병, 정리를 통한 규모 이상의 경쟁력 있는 기업 육성 정책 등 다양한 정책을 구사중.
- 특히, 기술 수준, 경영효율이나 업종 진입 문턱이 낮은 일반 가공업, 상업 무역유통업에 대한 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자기자본 비율이 낮거나 지분구조가 복잡한 기업에 대해서도 대출 억제가 이뤄지고 있음.
- 산업별로 도로, 교통운수, 통신 등 정책적 지지를 받고 있는 분야의 신규 투자로 자금 이전이 진행되고,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신용등급에 기반한 선별적인 대출 억제, 완화 조치가 지속될 예정임.

(문의처 : 팡조우무역관 강병수 kotrachina@hanmail.net)